



10월 16일 패서디나 브룩사이드 공원에서 열린 연합야외예배,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었다. / 사진: 안동윤 집사

‘은혜의 햇살’ 가득 넘치고...

■ 3개채플 연합야외예배(특집 6, 7, 8, 9면)

지난 10월 16일 주일 패서디나 브룩사이드공원에서 전교인 야외예배 및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지난 봄 성공적으로 치뤄진 야외예배 및 운동회를 경험삼아 기획하게 된 것이었다. 무엇 이든 시작이 어렵다고 했던 말처럼 처음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만해도 이 기획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공을 들이는만큼 기도에 열심을 닦던 우리의 모습이 예뻐보이셨는지 주님께서는 세 채플의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에 용기를 내어 준비했던 야외예배는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6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주일에

10

 InChrist Community Church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Oct. 2016 Vol.4 No.10



가족 같은 따뜻함 '사랑의 밥상' 화기애애

■ 한어청년부 주안에만남

9월 25일(주일) 오후 4시에 LA채플에서 코람데오 한어청년부의 주안에만남이 있었습니다.

새가족들뿐 아니라 약 40여명의 청년부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풍성한 환영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부 새가족팀은 새가족들에게 주안예교회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한 달여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날 식사는 밸리채플 권사회에서 손수 준비해주셔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사랑의 밥상을 새가족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청년부 새가족팀원들의 소개와 간사팀 소개를 통해 현재 청년부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새가족팀의 문병훈 형제와 김지연 자매가 준비한 게임을 통해 다같이 웃고 즐기며 새가족들이 어색한 마음을 녹이고 청년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게임을 통해 얻은 달란트로 달란트 시장에서 물건을 물건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평신도사역훈련



원에서 청년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영 간사가 체계적인 주안예교회의 훈련들을 소개하며 청년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안예교회의 4대 목회비전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한어청년부를 도울 사역자로 새로 부임한 이요셉 전도사님을 소개해주셔서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새 가족 조우진 자매는 주안에 만남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고자하는 방향을 알게 되었으며 주안예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

이 따뜻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안예교회 청년들을 만나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게임진행을 맡았던 새가족팀의 김지연 자매는 새로운 주안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게임진행을 맡다보니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양국민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된 주안에 만남은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한 자리였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낮은 자리에 서영혼들을 섬기는 코람데오 한어청년부가 되길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 속에 새생명으로...

■ 하반기 성찬·세례식

10월 셋째주 수, 금 영성집회(19, 21일) 와 목요 코람데오 예배(20일) 중에 하반기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플리트채플의 김정연 성도가 입교하였으며 밸리채플의 장슬기, 최엘림, 이의연 성도와 박유라 집사, LA채플의 오준영, 조우진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를 한 김정연 성도는 "After the confirmation, I will apply God's words in my life and try to keep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rough his words and by prayer." 라고 세례 후의 삶을 결단하였고, 이의연 성도는 "I was worried but very excited



to proclaim that I am a daughter of God in front of the members of the church. I'm also excited for things to come and a deeper relationship I will have with God!" 이라고 세례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지 1년 정도된 오준영 성도는 "이제 그동안 지어온 죄들로 부터 용서받고 참된 그리스도 인이 되고 싶다. 앞으로 잘 여문 열매



로 은혜에 보답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세례식 후에 "때로는 너의 앞에" 를 온 교우가 함께 찬양하며 세례자들과 입교자를 위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들을 전달하였고, 담임목사님께서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한명씩 나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 고린도전서 11:26의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를 따라 형식이 아닌 마음속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오병순 기자 |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복된 과정 44명 ‘열공’

■ 제10기 주안에살

주안에 살 10기(1, 2, 3권 각 권 7주과정)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0월 9일(주일) 오후 5시 30분 LA채플에서 있었다. 매년 3기 과정을 실시하여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는데, 벌써 10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혁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삶으로’ 그리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에 임할 때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평사원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정미 피택권사의 훈련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안에 살의 목적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주안에 살을 이수하신 성도님들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매우 소중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



어 너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주안에 양육과정 중, 첫번째 과정인 주안에 살은 그냥 평범한 성경공부가 아니고 주안에 성도라면 누구나 이수해야하는 필수과정이며 또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틀림없이 삶이 변화되고 또 자신의 신앙수준도 한단계 upgrade 될 것임을 확신하고, 다음 11기에는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번 10기 주안에 살은 세계 채플에서 모두 44분이 신청하셨는데, LA와 플리튼채플은 10월 11일(화요일), 밸리채플은 10월 12일(수요일) 저녁 7시 45분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6주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청년부 1팀과, EM 사역자 1팀도 공부를 하게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한다.

| 이광영 기자 |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배우는 기쁨이 넘쳐

■ 연합교리학교

교회 크고 작은 행사가 줄맞춰 서있는 중에 교리학교는 어쩌면 조금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이러 저러한 핑계로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세 채플 성도들이 모일 기회만 되면 익숙하게 마주하게 되는 반가운 각 채플의 리더들이 이날도 익숙하게 한자리에 앉아 서로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순간 명절이면 한번씩 만나지는 시골에 계신 친척분들이 생각났다. 일년에 서너번 만나는게 고작인 친척어르신들은 꼭 어제 만난 이웃 사촌처럼 너무나도 쉽게 곁을 내어주어 조금은 “이상타” 하며 바라봤던 어린시절 추억말이다. 사촌형제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그것도 시간이 서로 맞아야 고작 일주일정도 할머니댁에 같이 어울려 놀았지만 일년 내내 짝꿍이었던 친구 기억은 가물 가물해도 사촌형제들과의 추억은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우니채플에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이 밸리로 흩어져야 할 때만해도 섭섭했었고 다우니채플이 플리튼으로 옮기고 엘에이 채플로 식구들이 이동을 할 때도 맘이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각 채플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



고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동지애 혹은 형제애를 느끼게 되었다.

주일 이른 아침부터 교회학교 바로 전까지 분명 설새없이 움직였을 리더들은 최혁목사님의 강론을 하나라도 놓칠까 귀를 열고 빠른 손놀림으로 노트를 써 내려갔다. 학교다닐 때도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우스개소리를 할 정도로 말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익숙한 것에 더욱 익숙하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버겁고 그러다 보니 인색한 마음을 먹기가 쉬울 듯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 열

심을 내어주시니 아직 나이 어린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기만 하면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주워 담는다.

혼돈스러운 것이 당연하기까지 한 시절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전하고자 최선 그 이상의 공을 들어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최혁목사님의 열정이 주안에 교회 교인들의 특별한 영성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 어쩔 때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보호막이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교리학교에 참여하자 다짐한다.

| 채은영 기자 |

3개채플 성가대 한목소리로 '놀라운 사랑'

■ 크리스천헤럴드 39주년 기념 찬양제

지난 10월 2일 크리스천헤럴드와 창립1주년을 맞은 CHTV18.88 주최,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후원으로 열린 찬양제가 나성한인교회에서 있었다.

나성한인교회의 신동철 목사의 찬양의 능력, 다윗의 찬양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라는 내용의 설교로 참석한 청중들과 은혜를 나눴다.

2부의 찬양제에서는 나성열린문교회 살롬권 사찬양대, 나성한인교회, Bliss Youth Orchestra,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Solo Sop. Jen Lee, 주안예교회, CHTV 여성코랄, 나성한인교회, 남가주장로성가단 등 찬양팀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안예교회 연합 성가대는 참가자 54명으로 참가한 팀 중 가장 많은 대원이 참석하여 “주가 은혜로 이끄시리”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6명의 주안예교회 장로가 함께한 남가주장로단은 “Amaz-

ing Grace”와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모두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피날레로 모든 찬양팀들이 “할렐루야”를 함께 부름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어 아쉬움을 뒤로 내년을 기약했다. | 박창신 기자 |

끝까지 꿋꿋하게 세코야처럼 믿음의 경주를

■ 원로·은퇴장로 수련회를 다녀와서...

원로장로님과 은퇴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목회부와 함께 9월 28-30일 요세미티, 킹스캐년, 세코야국립공원을 2박 3일동안 다녀왔습니다.

첫째날, 오직 여호와 한분만을 의뢰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빈틈없이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기업을 지켜주리라는 최혁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정도영 장로님의 노련한 사회로 장로님들의 소개와 간증으로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찬양하며 킹스캐년과 세코야국립공원에 들어가 수 천년전부터 심어진 나무들이 환경에 적응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나, 이제는 진이 빠지고 그이상 버틸 힘이 없어보이는 상처난 고목들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을 보았습니다. 70-80년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목표로 뛰며 믿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매우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온난화로 인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들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 생명 다하기까지 산소를 공급하며 꿋꿋이 인내로 서있는 모습을 보며, 이 지구상



2박3일 즐거운 수련회를 갖고 있는 원로·은퇴장로 부부들

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날, 요세미티 공원에 들어가니 땅에서부터 하늘높이 치솟은 웅장한 바위산, 물이 없어 2565feet를 자랑하던 폭포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창조 이후 변함없는 모습으로 모진 비바람을 견디어낸 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없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작은 존재임을 알려 주는 듯 했습니다.

셋째날에는 박헌동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신 시간들을 아끼며, 결코 후회함이 없는 보람된 삶을 위해 재정비하는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의 흔적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으로 본이 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장로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활짝 웃으며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김복남 피택장로님과 김재주 집사님 부부팀이 반갑게 맞이하며 식사대접하여 주신 것도 감사의 한장면! 또 우리와 3일간 함께하며 운전하여주신 윤선생님께서 LA채플에 출석하시기로 하셔서 금쪽같은 새신자 탄생을 기대하며 은혜롭게 추억의 여행을 마치게 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김신실 기자 |



구름기둥·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은혜 총만



우리는 야외무대 체질인가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완전 땀어요 'ICCC 걸그룹'

〈1면서 계속〉 전날 밸리지역에 내린 비로 행여나 열심히 준비한 예배가 허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초대된 손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중보기도팀은 물론 대다수의 교인들이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침까지 하늘을 가득 매운 구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치뤄졌고 세 채플에서 모인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운동회가 시작되자 구름은 거두어주시고 선선한 날씨로 뛰고 달

리기에 적합한 오후를 선물해 주셨다.

우리가 무엇이 길래 하나님이 이리도 큰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가 무엇이 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확정된 싸인을 주시는지 감당키 어려웠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넘쳐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낯설음이 지워진 자리에 한마음 한 뜻이 된 주안에 성도만이 남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나를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어 감사에 감사가 넘쳐났다.

교역자들의 유쾌한 댄스와 여러 달 밤 늦도

록 준비한 각 채플 중고등부 학생들의 아이돌 못지 않은 군무, 청년들의 흥겨운 몸놀림에 예정에 없던 전교인 단체댄스까지 우리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매 순간 깨달으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있는지를 확인하며, 그 길이 돌췌발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지난 3년이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날 하나님이 구름과 햇살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 채은영 기자 |



영차 영차, 젖먹던 힘 다해 '삼겹줄' 놓지 않으리라...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여보 일어나! 힘 좀 내!



만점 꽃았어!



내가 1등할거야



정경화 집사(플러튼채플) 먼저 최상의 날씨로 주안예교회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느낄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또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드러진 야외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어린 손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운동회에선 특히 꼭 이겨보리라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당기고 당긴 줄다리를 통해 그간 무참하게도 허술했던 체력의 바닥을 거침없이 몸소 빠져리게 깨달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영과 육을 더 튼튼하게 강건케 하는데 힘써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옛날 오재미 넣던 실력으로

연합야외예배 사진팀
안동윤 · 양영 · 조원웅 집사



뛰고 달리며 하나된 '주안에 형제 자매'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수박에 장미꽃이



호떡집 대박 났어요



애교로 봐주세요



이혜령 권사(밸리채플) 전날 저녁부터 내린 비는 주일에도 올 수 있다는 예보를 접하고 기도 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미소를 느낄 수 있는 그 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햇빛이 얼굴을 내밀면 구름으로 살짝 가리어 덥지 않게 하였고 그들이 오래 지속되면 다시 햇빛을 내려주셔서 춥지 않게 인도하셨던 주님.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하는 것 같았다.

김명자 집사(LA채플) 주님 지으신 자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 채플과 자녀 세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어



우려져 연합과 화목의 참기쁨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시고 준비하신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Brandon Chae(Valley EM) It was a great experience where all three chapels were able to mingle together, even with the KM and adults. I liked praise where we sang in both English and Korean. It was awesome since all of us gathered together in order to glorify Father's name all together!

안경숙 피택권사(밸리채플) 세개 채플 성도가 모이니만큼 음식 준비도 대단했다. 모두 준비하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맛있게 음



식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기도해 온만큼 시작부터 우린 이미 하나를 이뤄가고 있었다. 자연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님 의 섭리를 영의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로 마친 예배는 은혜와 감동 그 자체였다.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모두 함께 식사하고, 모두 함께 게임과 응원을 하는 우리는 하나였다.

Gloria Yi (Valley EM)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being able to have service outside and have fun with everyone. Instead of being a normal service done at church, it was more fellowship under God with all church members. It was fun to have a combined service, being able to see other people from the other chapels as well.





서먹서먹했던 얼굴들 어느덧 '활짝' 폈어요



경기는 졌지만 응원만 단연 1등



만날수록 정이 새록새록



많이 드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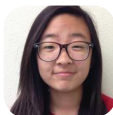


니들 집에 가면 혼난다



신현석 성도(한어청년부) 아무것도 없는 야외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쏟아주시는 느낌이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Yehju Park(Valley ICY) I loved outdoor service because I got to worship not only with all the church members but with God's creations. The birds chirped while we sang and the trees swayed as we danced. It reminded me of Matthew 6:25-34 when Jesus told us not to worry because even God takes care of the birds and the flowers of the field. I pray that our church will be built on the Word so we can be used for God's glory!



Leo Seo(Fullerton EM) As I looked around, I noticed how blessed we were as Christians because I knew God sent his Holy Spirit to each of his sons and daughters that came to perform the sole purpose we were put on this Earth, to glorify and praise our Heavenly Father. It wasn't a moment of three different chapels but a time where we unified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worship the only graceful and merciful God.

조영일 집사(플러튼채플) 오랜만에 주안예교회 모든 채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오랜만에 맛본 호떡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한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안경숙 집사(플러튼채플) 하나의 교회가 협동하기에도 버거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야외예배를 드리면서 세 채플이 모여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주관 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성훈 피택안수집사(LA채플) 야외예배와 운동회 일정을 모두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전교인이 다같이 모여서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와 진행과 마무리가 다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한 마음 주심으로 서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의료국(플러튼채플)

평생 쌓은 진료의 지혜 성도들 위해

플러튼 채플의 의료국에는 한의사이신 조순택 집사님과 송다나 권사님, 그리고 간호사이신 김비옥 집사님께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플러튼 채플의 부속 건물에 마련된 진료실에는 각종 한의 치료 장비를 비롯하여 일차 진료에 필요한 구급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한의사들이 상주하시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한의 진료에 필요한 베드와 부속 장비들이 여느 한의원 못지않게 잘 준비되어 필요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순택 집사님과 송다나 권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한의 진료를 시작한 그야말로 한의학의 베테랑들입니다. 이제는 두 분이 모두 은퇴하시고 그동안의 진료경험을 토대로 봉사하시는 참 일꾼들이십니다. 두 분 모두 나이는 조금(?) 많으시지만 마음과 육신은 젊은 오빠와 언니이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우려한 주변의 만류도 뿌리치고 지난 두 번의 멕시코 선교도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왼쪽부터 송다나 권사, 김비옥 집사, 조순택 국장

는 그들의 열약한 의료 환경과 건강 상태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침구 진료의 좋은 효과와 호응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송다나 권사님 213-700-2454)

과 주일(조순택 집사님 562-896-5633), 두 분이 번갈아 가며 교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분은 진료에 필요한 침구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자비로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분에 비하면 아직 젊으시고 현역 간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김비옥 집사님은 교회의 건강 진료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십니다. 각종 피검사와 건강진료, 독감 예방주사 등에 본인의 직장까지도 뒤로 미루고 참여하여 교우들의 건강 도우미로 봉사하십니다.

김비옥 집사님과 남편이신 박만규 집사님은 기도의 용사로도 유명합니다. 두 분은 기도국을 맡아 교회의 예배시간에 기도의 용사들을 때로는 이끌고, 또 때로는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라는 교회의 초석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2교구(LA채플)

사랑과 친밀함으로 낙오없이 알곡처럼

유공재 장로님이 교구장을 맡고 계신 LA채플 제2교구는 3개 구역으로 편성돼 있으며 제1구역장에 조원 피택 안수집사님, 제2구역장에 류은호 피택 권사님, 제3구역장에 이춘희 피택 권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패서디나부터 LA까지 넓은 지역에 교구원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가족 같은 친밀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나눔으로서 교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교구가 되어 순종하는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는 교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는 보이지 않게 충성하는 진짜 알곡들로 구성된 교구인 것입니다.

교구장 유공재 장로님은 “다른 모든 교구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교구를 이끌어 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히 공과공부를 할 때는 교구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모임을 인도하려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1구역장 조원 피택 안수집사님은 “정말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구라고 자평하시고 교구원들 간에 사랑이 많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구”라 자랑합니다.

2구역장이신 류은호 피택 권사님은 교구원들이 서로 서로를 챙겨주고 나누기를 즐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랑스런 교구라 소개하십니다.

또한 3구역장 이춘희 피택 권사님은 LA채플의 봉사국장님답게 “매주 교구원들이 주일 식사 시간에 서로 모여 앉아 친교를 나누며 정답게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흐뭇해 하십니다.

한편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LA예배처소로 시작할 때 처음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의 전적인 후원, 그리고 LA채플에 속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LA지역에 지경을 넓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 하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주님 사랑의 일념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시기였는데 “LA채플 전 교인들이 완전히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헌신한 결과 이제 채플이 안정되고 출석 교인도 처음 시작 할 때 수자보다 3~4배의 부흥을 이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교구뿐만 아니라 1, 3, 4교구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참 감사할뿐이라”고 교구장님은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이제 올 해도 얼마 안남은 이때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고 기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역 일들을 자기 자신의 일보다 더 힘쓰고 구역원들을 사랑한 구역장님들과 이러한 지도에 잘 따라준 구역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말을 맺으셨습니다.

| 나형철 기자 |

■ 숨은 봉사자를 찾아서
(벨리채플 김용도 집사)

“봉사 통해 오히려 제가 받은게 더 많아요”

작은 선행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다면 이 처럼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은 체구의 김용도 집사님! 파님의 가정과 같이 살게 되면서 시작한 교회에서의 자그마한 봉사의 일이 비록 자신을 위한일이라 생각하며 일해 오셨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자신뿐 아니라 널리 이웃까지도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이 되었기에 탐방해 보았습니다.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봉사는 공짜가 없었습니다.”란 말 속에 의문점이 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받으셨나요?’

어렵게 지냈던 자녀들이었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에 같이 살게 되었고 자녀들이 직장으로 학교로 다 나가버린 시간 김용도 집사님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놀면 뭐하나? 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과도 교제도 중요하지...’라는 마음으로 주안에 교회 잔디 깎는 일을 교구장님과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교구장님을 도우시며 하신 일들이 지금은 혼자서 묵묵히 교회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시면서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일에 부역에 남비들이, 바닥이 언젠가부터 빛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교구식사 당번이 돌아 올 때면 일찍 나오셔서 무겁고 힘든 일 손수 먼저 하시고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김용도 집사(오른쪽), 김복남 봉사국장과 함께

것 이라에 이리주소...” 하시며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하는 맘 또한 지극하셨습니다. 부인이신 김권사님의 꿈을 결들인 무생체 무침은 교구식구들의 입맛을 훈훈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다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모든 교인들이 은혜 속에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라 말씀하신 집사님의 눈망울 속엔 안타까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듯 했습니다.

어려웠던 자녀들의 형편이 나아졌고 손주들이 SAT시험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쁨과 집사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에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요한3서 2절)

어느 곳에서든 아름답고, 쾌적하고 안락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는 봉사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맘껏 기뻐 감사 찬양 올릴 수 있었음을 느껴봅니다.

| 오윤선 기자 |

성경퍼즐
정답

<9월호>



9월호 당첨자: 구명희, 김명자, 박경원, 신길현, 안유은, 오병순, 이용화, 이지혜, 황영옥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추수감사절이 다음달로 다가왔다. 이 감사의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감사절 식탁은 칠면조 요리와 스타핑, 그리고 크랜베리 소스로 더욱 완전해진다. 영양이 듬직한 야채, 콩 종류와 함께 조리된 스타핑은 다른도움 없이 그 자체 만으로도 영양이 풍부한 요리이다. / 박창신 기자 /

스타핑(12인분)

다진 샐러리 1과 1/2컵, 다진 양파 1컵, 다진 마늘 1작은 술, 채넌 송이버섯 1컵, 깍둑썰기로 자른 토스트한 식빵 8컵 (현미 샌드위치 빵 14 쪽- slices), 잘게 부순 호두 1/2컵, 말린 크랜베리 1/2컵, 버터 1스틱(4 온스), 닭 육수(Swanson chicken broth) 1컵, 잘게 썬 칠면조 내장(통집, 심장, 간/ 없어도 좋음),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조리법

1. 325 도로 오븐을 예열한다.
2. 큰 후라이팬에 버터를 중간 불에 녹인 후 칠면

조 내장을 볶은 뒤

3. 샐러리, 양파, 송이버섯, 마늘을 넣고 3 분 정도 더 볶아 부드러워지면
4. 나머지 재료를 넣고 잘 섞어 큰 베이킹 디쉬에 옮겨 325도 오븐에 1시간 동안 굽는다.
5. 5분 정도 기다린 후 상에 올린다.

크랜베리 소스

신선한 크랜베리 12온스, 설탕 1컵, 다진 오렌지 껍질(레몬 껍질) 1큰술(1



칠면조 요리를 돕는 Stuffing & Cranberry Sauce



Table sp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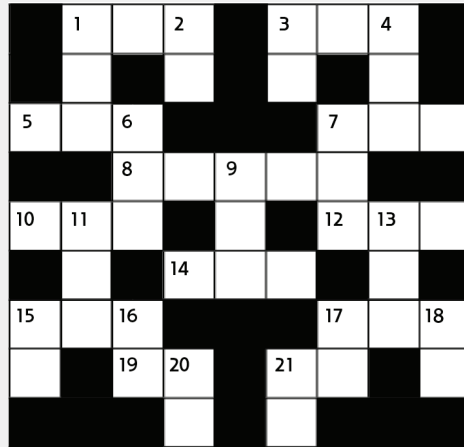
물 2큰술(2 Table spoons), 식초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씩 취향대로

조리법

1. 냄비에 크랜베리, 다진 레몬껍질, 물을 넣고 중간 불에서 젓다가 끓으면
2. 약한 불로 줄여 크랜베리가 터질 때까지 졸인다(12-15 분).
3. 불을 끄고 식초를 넣고 식성에 따라 소금과 후추를 더한다.
4. 소스를 실온으로 식힌 후 상에 올린다.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1. 구약 21권째 성경으로 지혜문학이라고도 함
3. 키가 작아 볼 수 없자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눅 19:1-9)
5. "모세가 아론의 () 옷시엘의 아들 미사엘과;"(레 10:4)
7. 요단 건너에 있는 가나안의 고대 국가(사 17:5)
8. 사자가 이곳에서 죽음(창 23:2)
10. 옴바 성에 있는 여신도인데 도르가 라고도 함(행 9:36-40)
12. 부친은 알패오, 모친은 마리아, 형제는 요세(마 10:3, 막 15:40)
14. 액체가 물체에 배어들다(겔 47:2)
15. 바울이 잡혀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행 21:10)
17. 살인죄로 예수와 같이 잡혀왔는데 빌라도가 놓아줌(마 27:26)
19. 사마리아 한 동리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요 4:5-6)
21.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 모여 회막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3 인씩을 뽑아 땅을 분배(수 18:1-10)



3. 머리털을 깎는데 쓰는 칼(민 6:5)
4. 나오미의 큰 며느리(룻 1:4)
6. 승부가 나지 않다(출 20:23)
7. 다윗의 자손(대상 3:21)
9. 로마인이 봉사하는 여신으로 아버지는 쓰스, 어머니는 래도네(행 19:34)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 줌(신 3:27)
13. 죄가 관영함에 소동성과 함께 유향불로 멸망(창 17:24-28)
15. 구약 제 22권째 성경
16. 일한 댓가나 고마운 것에 대해 값음(창 29:15)
17. 애굽에서 군주에 대한 존칭(왕상 11:18)
18. 가나안과 수리아에서 주신으로 섬김을 받은 남성 신으로 태양을 상징(사 2:11-15)

20.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곳(요 4:46-50)
21. 초대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존경 받는 자로 70문도 중 한 사람(행 15:22, 행 16:19)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 〈세로 문제〉 1.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창 49:24)
2.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는 약속(창 28:20)

■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8:00pm
재방송: 매주(토) 1:00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1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산철, 나형철, 박창진,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가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